

### 브라민들의 세계에는 슬픔이 없다.

오늘 태평한 황제, 슬픔 없는 황제가 그의 주인, 태평한 황제들을 만나려고 왔다. 이 집회는 합류시대의 황제들의 집회다. 너희가 미래에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은 이 주권을 통해서다. 밥다다는 자녀들 모두가 슬픔 없는 황제가 되었는지, 즉 어떠한 유형의 슬픔에서도 벗어난 자들이 되었는지 보고 있었다. 브라민들의 세계에는 슬픔이 없다. 합류시대에 브라민의 세계에 대해 권리를 지니는 영혼들은 태평한 황제들이다. 너희는 생각에조차 슬픔의 파도가 오지 못할 정도로 그러한 황제들이 되었느냐? 너희들 스스로를 끊임없이 행복한 세계에서 항상 행복의 침상 위에 머무는 태평한 황제들로 경험하느냐? 브라민 세계 혹은 브라민의 삶에서는 성취하지 못할 브라민 보물이 없기 때문에 슬픔의 이름이나 흔적도 없다. 슬픔이 생기는 이유는 뭔가를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취는 행복해지는 수단이다. 그래서 모든 성취의 화신이 되는 것은 곧 행복의 화신이 된다는 뜻이다. 너희는 그렇게 변함없는 행복의 화신이 되었느냐? 행복해지는 수단은 특히 관계와 재산이다. 생각이라도 좀 해봐라, 너희는 영원한 행복이라는 관계를 얻지 않았느냐? 관계라는 면에서, 만일 관계가 하나라도 부족한 경우엔 슬픔의 파도가 밀려올 것이다. 브라민 세계에서 아버지와의 모든 관계는 영원하다. 결여된 관계가 하나라도 있느냐? 모든 관계가 불멸하거늘 슬픔의 파도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부의 면에서 보물들이나 모든 부의 고귀한 보물은 너희가 자동적으로 온갖 유형의 부를 다 얻을 수 있는 지식의 부다. 너희는 부와 관계를 이미 성취했으니 태평한 세계에 있다. 너희는 자녀들이며 또한 변함없이 행복한 세계의 주인들, 즉 황제들이다. 너희는 이미 황제들이 되었느냐, 아니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느냐? 너희들에게서 슬픔의 파도를 보거나 그에 관한 얘기를 듣고 밥다다는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 너희는 행복의 대양인 분의 자녀들, 태평한 황제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 슬픔의 파도가 어찌 있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행복한 세계의 경계선 밖으로 나간 것이 틀림없다. 시타가 유혹되어 행동수칙의 선을 넘었던, 즉 행복한 세계의 경계선을 넘어섰던 지난 사이클의 기념물에서 보인 것처럼 너희는 뭔가 인위적인 유인이나 인위적인 형태에 이끌렸는 데, 시타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슬픔의 오두막으로 들어갔다! 경계선 안에 머물 때 너희는 심지어 밀림에서도 행복을 경험하고 버림에서조차 행운을 경험하며, 빈 조개껍데기 하나도 가진 게 없어도 너희는 황제들이다. 거지처럼 가난한 삶에도 너희는 왕자의 생을 영위한다. 너희는 이것을 경험하지 않느냐? 세상 전체를 떠나 마두반에 올 때 너희는 무엇을 경험하느냐? 이것은 세상의 한 구석에 있는 작은 곳이지만 여기에 도착하자마자 너희는 황금시대의 세계보다도 더 고귀한 세계에 이르렀다고 얘기한다. 이처럼 너희는 밀림에서도 행복을 경험하지 않느냐? 너희는 메마른 산까지 행복의 세계로, 다이아몬드처럼 고귀하게 경험한다. 너희의 세계가 이미 변한 것을 경험한다. 마찬가지로 브라민 영혼들은 어디에 있든, 슬픈 분위기 가운데서도 너희는 연꽃과 같다. 너희는 슬픔에서 분리된 태평한 황제들이다. 신체의 질병에서 오는 슬픔의 파도도, 마음속에 일어나는 낭비적인 격변에서 생기는 슬픔의 파도도, 어차피 없어질 부에 대한 성취의 부족에서 오는 슬픔의 파도도, 너희의 나약한 산스카르나 성질 또는 남들의 나약한 산스카르나 성질에서 오는 슬픔의 파도, 분위기나 파동의 슬픔에서 생기는 파도, 관계나 연결을 바탕으로 한 슬픔의 파도 등 그 무엇도 너희를 끌어당기지 않는 것을 테지? 너희는 그런 것들과 거리를 두고 있지 않느냐? 너희의 세계가 변하면 너희의 산스카르도 변한다. 너희의 성질도 역시 변했으므로 너희는 행복한 세상의 일부가 되었다. 사실 너희는 거지가 되었다, 즉 너희의 집인 너희 몸마저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너희는 거지들이 되지 않았느냐? 하지만 너희는 아버지의 모든 보물에 대해서도 역시 주인이 되었다. 너희는 자아의 군주가 되었다. 너희는 그런 도취감과 행복을 느끼느냐? 이것을 태평한 황제가 된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여기에 앉아있는 너희들 모두

황제들이 아니냐? 너희들의 왕국의 상태는 좋으냐? 너희의 왕국에 있는 일꾼들 모두 너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느냐? 황제인 너희를 속이고 있는 것은 그들 중 아무도 없을 테지? 너희 왕국의 일꾼들 모두, “대령해 있습니다, 주인님!” 또는 “하명만 하십시오, 주인님!” 이라고 하는 자들이냐? 너희는 각자의 법정을 여느냐? 왕들의 법정은 일꾼들 모두가 정확하게 일하고 있는지 점검하려고 열린다. 너희들의 보물창고는 그 모든 보물로 가득하냐? 너희가 대 기부자로서 끊임없이 기부해도 보물이 여전히 끝나지 않을 정도로, 너희의 보물창고는 결코 끝나지 않을 만큼 가득 채워져 있느냐? 너희는 이것을 점검하느냐? 너희는 브라마 쿠마르, 쿠마리들이 되었다, 너희는 요기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부주의함에 도취되어 스스로를 점검하기를 잊지는 않을 테지? 끊임없이 너희 왕국에서의 활동들을 점검해라. 이해하느냐? 너희는 체크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 않으냐? 이번 집회는 대부분이 원숙하고 경험 있는 자들의 집회다. 경험을 가졌다는 것은 권위가 있다는 뜻이다. 어떤 권위냐? 자아주권의 권위다. 너희는 그런 권위를 가진 자들이 아니냐? 너희는 오늘 방금 왔다. 너희는 제 스스로를 점검하고 증서를 차지하려고 오지 않았느냐? 너희가 합당한 황제들인지 보려고 온 것이 아니냐? 너희가 어떤 유형의 왕이든 그에 대한 합격증을 받아 가지고 돌아갈 것이 아니냐? 너희가 명목만의 왕 (통치자)인지, 모든 활동에서도 역시 왕인지 너희는 거울의 궁전에서 스스로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앗차.

행복한 세계에 한결같이 머무는 태평한 황제들에게, 왕국에 대한 권리를 변함없이 가지는 강력한 영혼들에게, 변함없이 슬픔의 모든 파도 너머에 머물며 행복의 공여자,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경험의 권위자인 고귀한 영혼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밥다다가 다디들을 만나심.

밥다다는 아버지와 대등한 자녀들 모두를 보며 기쁘다. 변함없이 아버지와 대등한 영혼들은 무척 많이 사랑 받는다. 그래서 집회 전체가 대등한 영혼들의 집회다. 밥다다는 그와 대등한 영혼들을 언제나 그의 동반자로 본다. 그런 자녀들은 그가 세계를 순회여행 할 때 함께 하고 또 그가 자녀들을 돌보려고 갈 때도 역시 함께 간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와 함께이기 때문에 대등한 영혼들은 한결같은 요기들이다. 그들은 요가를 해야 하는 자들이 아니고 언제나 사랑에 몰입되어 있다. 그들은 결코 분리되지 않으니 뭘 기억하겠느냐? 그들은 자연적으로 기억한다. 함께 있을 때 너희는 자동적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대등한 영혼들의 단계는 함께 있고 항상 합쳐져 있는 단계다. 따라서 매 발걸음마다 자녀들은 변함없이 앞에 있고 아버지는 그들 뒤에 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모든 과제에서 앞에 있다. 자녀들이 앞에 있고 아버지는 강력한 전류 (샤카시)를 줄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동반의 경험도 역시 그들에게 준다. 아버지가 강력한 전류를 주듯이 대등한 자녀들도 역시 강력한 전류를 주는 자들이 된다. 이것은 그런 집회가 아니냐? 이것은 특별한 구슬들로 이루어진 특별한 염주다. 염주는 제 스스로 준비되고 있다. 그것은 준비할 필요가 없이, 자동적으로 준비되고 있다. 등수가 발표되거나 주어진다면 그 경우엔 의문이 생길 테지만 너희에게는 자동적으로 등수가 매겨진다. 앗차.

밥다다가 쿠마르들의 특별한 그룹, 신에게 속하는 청년들의 그룹을 만나심.

세상에서도 저 청년들은 각자 지각에 따라서 과제를 수행하지만 그들의 과제는 사물을 파괴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과제는 수립의 과제에 변함없이 협조하며 지내는 것이다. 만일 뭔가 이유거리나 문제가 생기면 너희는 그에 대한 해결책을 쉽게 찾을 수 있느냐? 밥다다는 변함없이 쿠마르들의 그룹에 희망을 가진다. 청년들이 모두 용기와 열의를 유지하며 끊임없이 승리한다면 그들은 세계에 승리의 깃발을 올리고 세상 전체를 순회 여행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변함없이 날아다니는 단계에서 발전하고 있다. 멈춘 단계에 있는 자는 너희들 중에

아무도 없을 테지? “청년 그룹”은 변함없이 강력한 봉사를 하는 자들이라는 뜻이다. 젊은이들은 원하는 것은 뭐든 할 수 있다. 저 젊은이들은 파괴적인 일을 하는 반면 너희는 수립의 과제를 수행한다. 그들은 평화롭지 못함을 만들어내는 반면 너희는 평화를 퍼뜨리는 평화의 화신이다. 쿠마르들을 위해서 많은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너희는 동요되는 일이 결코 없을 정도로 강한 쿠마르들이다. 여기서는 너희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빛나지만 너희가 그리로 가자마자 낯은 세계로 되돌아가는 그런 것이 되게 하지는 마라. 처음에는 큰 열성과 열의를 가지고 봉사해 나가지만 아주 작은 갈등이라도 생기면 낯은 세계로 돌아가 버리는 쿠마르들이 일부 있다. 너희는 이미 버린 것을 다시 줍기를 좋아하느냐? 너희들 모두 다 낯은 세계를 이미 버리지 않았느냐? 아직도 묶여있는 끈이 있다면 너희는 계속해서 돌아다닐 것이다. 그러니 끊임없이 너희 스스로를 신에게 속하는 청년 그룹이라고 여겨라. 만일 쿠마르인 너희들 모두 원기를 회복하고 보물들로 가득해져서 돌아간다면 그 경우엔 너희를 보는 모든 이들이, 너희가 신인 영혼들로 돌아왔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경이로운 계획들을 세워라. 심지어 정부도 너희 청년들을 두려워한다. 너희는 정부에 길을 보여주는 도구들이 될 것이다. 쿠마르들이 언제나 봉사를 위한 강력한 계획을 만들게 해라. 그러나 변함없는 기억과 봉사의 균형도 역시 항상 있어야 한다. 앗차.

끊임없이 장애 없이 지내는 좋은 아침을 가지면 너희는 미래에 영원히 장애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지낼 것이다. 황금시대의 좋은 아침이 오면 그때 너희는 장애 없이 자유롭게 머물 것이다. 지금은 장애 없이 자유로워지는 좋은 아침이다. 너희는, “좋은 날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느냐? 너희는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인사하느냐? 지금은 좋은 낮이고 좋은 밤이다. 이처럼 끊임없이 장애 없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장애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지내는 좋은 아침 되세요” 라는 뜻이다. 앗차.

#### **밥다다가 쿠마리들의 그룹을 만나심.**

쿠마리의 삶은 자유의 삶을 의미한다. 이 자유를 통해서 너희가 뭘 받고 또 너희의 행운을 고귀하게 만드는 분에게서는 뭘 받는지 너희는 끊임없이 의식하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가 대학에서 여전히 공부하고 있는 쿠마리들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버지가 그러하듯이 나도 그러하다”라는 의식을 언제나 가져라. 아버지는 무엇이냐? 봉사자다. 그래서 너희들 모두 봉사하지 않느냐? 쿠마리인 너희 모두 아버지의 염주에 있는 구슬들이냐? 확실하냐? 너희는 누군가 다른 이의 목둘레에 걸린 화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의 목에 걸린 화환이 된 자들은 다른 누구의 목에 걸린 화환도 될 수 없다. 너희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너희는 생각으로도 다른 어디에도 갈 수 없다. 너희는 이 정도로 강하냐? 아버지 한 분에게 속함으로써 너희는 모든 보물에 대한 권리를 받는다. 너희는 모든 권리를 다 놓아버리고 2파이사를 (1루피의 극히 일부) 쫓으려느냐? 너희가 처음 매 맞을 때도 역시 그 2파이사를 받는다. 우선 먼저 슬픔과 평화롭지 못함의 구타가 있고 그 다음에 너희는 차파티 두 장을 먹는다. 너희는 그런 삶을 좋아하지 않을 테지? 쿠마리의 삶은 복된 삶이고 너희는 2중으로 복 많게 되었다. 이제 너희는 실제로 시험을 모두 치르지 않겠느냐? 저런 시험지가 아니다! 끊임없이 “나는 변함없이 쉬브 샷티다, 나는 결합되어 있다”는 의식을 가져라. 쿠마리들은 항상 어딘가 가야 한다 (결혼하면 다른 집에 간다). 그렇게 고귀한 가정을 찾는다면 너희가 그 이상 뭘 더 원하겠느냐? 쿠마리들은 좋은 신랑을 찾고 번영하는 가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한다. 이 가정은 아주 가득하고 번영해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모든 이가 그런 행운을 받아야 마땅하다! 와! 나의 행운! 계속해서 이 노래를 불러라. 모든 이가 달빛을 사랑하듯이 지식의 빛을 주는 자들이 되어라. 지식의 달처럼 되어라. 너희들 행운의 별이 빛나고 있듯이 다른 모든 이의 행운의 별도 역시 반짝이게 만들어라. 그러면 모든 이가 너희를 축복해주고 또 축복해줄 것이다.

쿠마리인 너희들 모두 장학금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장학금을 차지한다는 것은 승리의 염주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너희가 승리의 염주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빠른 노력을 해라. 너희들이 받는 모든 부양에 대해 보답하지 않을 테냐? 부양에 대한 보답은 아버지와 대등해지고 장학금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승리하려는 결의를 갖고 승리의 염주에서 구슬이 되어라. 너희들 모두 이 삶에 만족하느냐? 너희는 저 생활, 저 음식, 저 음료, 순회 여행 등을 기억하는 일조차 없겠지? 남들을 보면서 그것을 조금 맛보고 싶다고 느끼는 일은 없을 테지? 저 삶은 내려가는 삶인 반면 이것은 올라가는 삶이다. 올라가던 데서 아래로 추락할 자들이 누구냐? 변함없이 항시 준비되어 있어라. 언제나 너희 나름의 방식으로 준비된 상태로 머물러라. 공부라는 면에는 흥미의 굴레가 전혀 없다. 쿠마리들의 집회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봉사의 성장이 있다. 순수한 영혼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항상 상서로운 과제가 있다. 너희들끼리 서로 다른 산스크르를 조화시키는 과목에 너희 모두 합격하지 않았느냐? 복잡한 문제는 없고 너희의 시선과 태도는 다른 어디로도 끌리지 않는다! 쿠마리들은 특히 아버지 한 분에게만 속할 뿐 다른 누구에게도 속하는 않는 합격증을 차지해야 한다. 너희의 이름이 “발 브람차르니” (태어나서부터 줄곧 순결한)이듯이 너희의 생각도 그렇게 순수하게 해라. 이것을 장학금을 차지하는 것이라 한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오른손이다. 너희는 아버지 한 분에게만 속하고 다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쉬브 삭티들이다. 단지 이것만 기억해라, 그러면 어떤 유형의 마야도 너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앗차.

**작별의 때에** . 사트구루의 자비는 너희들의 유산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비를 베풀소서!”라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다. 너희는 나무의 씨앗인 분의 자녀들이므로 자연스럽게 목성의 징조와 구루인 분의 축복을 얻었다. 그것들을 달라고 청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그런 것을 달라고 청하는 데서 해방되었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데서도 역시 해방되었다. 너희가 청해야 할 것이 뭐 하나라도 남아 있느냐? 너희는 아버지 머리 위의 왕관이 되었다. 그런 자녀가 뭘 달라고 청하겠느냐? 그러니 나무의 씨앗이며 목성의 징조인 날 자녀들 모두에게 축하와 사랑과 기억을 보낸다.

**Blessing:** 세상에 대한 너희의 태도와 시선을 바꿈으로써 영성을 경험하는 지식 많은 영혼이 되어라.

세속의 친척들과 함께 살면서 제한된 관계는 보지말고 영혼만 보라. 너희가 영혼을 볼 때는 행복이나 자비 중에서 하나가 있을 것이다. “이 가련한 영혼은 외부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무지하고 순진하다”, 반면에 나는 지식으로 충만한 영혼이다. 그 무지한 영혼에게 자비를 가지고 너희의 좋은 염원으로 그를 변화시키는 것을 시범으로 보여라. 너희의 태도와 시선을 바꾸는 것은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다. 지식으로 충만한 영혼인 너희들은 그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할 수 없다. 그들이 너희의 동반으로 물들게 해야 한다.

**Slogan:** 너희의 고귀한 행위로 세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빛내는 것이 세계 시혜자가 되는 것이다.

\*\*\* 옴 산티 O M S H A N T I \*\*\*